

여대생의 성경험과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난희¹, 정준식², 송혜숙^{3*}

¹한국보건사회연구원, ²국립환경과학원, ³광주여자대학교

Influencing factor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assertiveness

Nan-Hee Yee¹, Joon-Sig Jung², Hyea-Suk Song^{3*}

¹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²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³Health administr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대생들의 성경험 수준, 성 태도, 성 지식 등 성행태를 파악하고,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여대생들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 경험이 없는 여학생(학부, 대학원)이다. 본 연구의 도구는 자기 기입식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AS 9.3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특성별 독립변수들의 차이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 성경험, 성지식, 성태도 차이검정 결과, 성경험은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성경험 수준이 높았고, 성지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인문계열 또는 이공계열일수록,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높았다. 성 태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인문계열에서, 종교가 없을 경우,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성적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기주장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 정체가 이미 확립된 대학생 시기가 아닌, 실제 성경험이 시작되기 전인 저학년 부터 교육을 통하여 성지식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exual behaviors, such as sexual experience,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sexual assertiveness and to encourage female university students to improve the level of sexual assertiveness. The subjects were 398 single, female studen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from a university in Seoul. The research tool wa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data obtained was analyzed using a t-test and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on SAS 9.3. The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rates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higher age, having religion, more allowance. The sex knowledge showed a positive relation with higher age, major related humanities or science & technology, and more allowance, and sex attitud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with higher age, major related humanities, no religion, and more allowances. The factors affecting sexual assertiveness were sexual attitudes and lower age. Overal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sexual assertiveness and sexual attitudes from elementary school.

Keywords : sexual experience, sexual attitudes, sexual knowledge, sexual assertiveness, female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오늘날은 성(sexual, 性)이라는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데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대량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 용이하게 됨에 따른 영향

*Corresponding Author : Hyea-Suk Song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 +82-62-950-3992 E-mail: hyeasuk@kwangju.ac.kr

Received December 24, 2015

Revised February 29,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부적절한 성적 접근 신호를 알고, 성폭력을 제어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이란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을 갖는다는 것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self-protection)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해결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밀레니엄 목표 가운데 Goal 3(Promote gender equity and empower women)는 가족계획에 기여한 바로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감소, 즉 가족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3] 의도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건강위험을 주게 되며, 임신 기간 중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산모의 경우,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병 등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의 위험도 높다. [4]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성적인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며, 성적인 권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신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고,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이다. [5]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시대중문화에 의한 성의 유희적 관점에 치우치게 되면서 성적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6,7]

선행적으로 수행했던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격형, 성태도, 성지식 및 성교육 등의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8,9,10,11] 그러나 성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을 수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들은 개념적 혹은 탐색적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성인으로서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여대생들의 성과 관련된 경험은 차세대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실태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성격형, 성태도, 성지식,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여대생들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에 본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의 일개 남녀 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결혼 경험이 없는 여학생(학부, 대학원) 398명이다. 본 연구의 도구는 자기 기입식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며, 문항의 구성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 성격형 수준, 성태도 및 성지식 수준에 관련된 문항과 성적자기주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AS 9.3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특성별 독립변수들의 차이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A major component configuration

Definition	Category	Measurement
Subordination variable	Sexual assertiveness	Subtotal 10 questions
	Sexual attitudes	Subtotal 4 questions
Discrimination variable	Sexual experience	Total
	Sexual knowledge	Total
	Age	Real age
Control variable	Major field	0=Art and humanity 1=Science and engineering 2=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House mate	0=None 1=Presence
	Sibling	0=None 1=Presence
	Religion	0=That no religion 1=Religion that
	A monthly allowance	0=30 million won or less 1=From 30 to 50 million won or less 2=Over half a million won

2.2 연구방법

성적 자기주장, 성격형, 성태도, 성지식에 대한 여학생들의 설문은 선행적으로 수행했던 연구에서 사용하였

던 각각의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성적자기주장 및 경험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Rickert et al.(2002)의 설문문항을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12] 이는 미국 내 한 대학에서 이성 교제 시 원치 않는 성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 질문에서는 ‘나’를 주체로 번역하여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질문은 13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가끔 그렇다’는 2점, ‘항상 그렇다’는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할 것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성경험 수준은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성행동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3] 성경험 수준을 “없다, 손잡기, 포옹, 키스, 가슴을 중심으로 한 애무, 성기를 중심으로 한 애무, 한 번의 성관계, 서너 번의 성관계, 여러 번의 성관계”로 분류하여 가장 높은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성경험 점수는 최저점 0점에서 최고점 8점까지이다.

2.2.2 성태도

성태도의 측정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4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순서대로 1점에서 5점까지 배점하며, 1번과 4번의 두 문항은 역으로 배점하여 총합의 평균이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낮을수록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진 것으로 본다. 성태도 문항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Crombach' α)이 0.742로 Churchill(1979)이 제안한 0.60을 기준으로 할 때, 임계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2.2.3 성지식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지식 수준의 측정은 Derogatis의 'Sexual Functioning Inventory'를 Yoo et al.(2010)이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16] 이 척도는 여성, 남성의 성적 특징, 피임방법 등 다양한 성지식에 관한 진위형의 2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따라 정답일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오답 및 ‘모르겠다’ 라는 응답에는 0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결정한다. 가능한 점

수범위는 0점부터 26점까지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전공분야, 거주 형태, 형제자매 유무, 종교유무, 한 달 용돈 등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대상자 398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20-24세가 231명(58.0%)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19세 이하가 106명(26.6%), 25세 이상이 61명(15.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나이는 약 21.7세로 나타났다($\chi^2=116.96, p<.001$). 여대생의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이 191명(48.2%)로 가장 많았으며, 이공계열은 141명(40.7%), 예체능계열이 44명(11.1%)으로 나타났다($\chi^2=91.41, p<.001$).

여대생의 동거인과 형제/자매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233명(59.0%)가 동거인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345명(89.6%)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209명(52.5%)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월별 용돈은 30-50만원이 가장 높은 195명(49.0%), 50만원 이상이 105명(26.6%), 30만원 이하가 95명(23.9%)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ir study

	Definition	Person (N)	Rate (%)	χ^2
Age	≥ 19	106	26.6	116.96***
	20~24	231	58.0	
	$25 \leq$	61	15.3	
Major field	Art and humanity	191	48.2	91.41***
	Science and engineering	161	40.7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44	11.1	
House mate	None	162	41.0	12.76***
	Presence	233	59.0	
Brothers and sisters	None	41	10.4	248.02***
	Presence	354	89.6	
Sibling	None	189	47.5	281.15***
	Presence	209	52.5	
A monthly allowance	≥ 30 million won	95	23.9	45.56***
	30-50 million won	195	49.0	
	50 million won <	106	26.6	
	Total	398	100.0	

3.2 이성교제 경험, 성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Table 3은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 성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여대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는 여대생은 290명(72.9%), 경험이 없는 여대생은 108명(27.1%)보다 약 2.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83.23, p<.001$).

성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는 여대생은 60명(15.1%), 성 경험이 없는 경우가 338명(84.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 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있는 여대생보다 약 5.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194.18, p<.001$).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여대생은 112명(28.1%), 경험이 없는 여대생은 286명(71.9%)으로 나타났다($\chi^2=76.07, p<.001$).

Table 3. Dating experience, previous experience, experience sexual violence damages

Definition		Person	Rate(%)	χ^2
Intersexual friends pass	None	108	27.1	83.23***
	Yes	290	72.9	
Sexual experiences	None	338	84.9	194.18***
	Yes	60	15.1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None	286	71.9	76.07***
	Yes	112	28.1	

3.3 성경험, 성태도, 성지식, 성적 자기주장 지식 여부

성경험, 성태도, 성지식,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지식 여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경험은 6점 만점 중 평균 3.55점, 성태도는 20점 만점 중 평균 11.86점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전체 26점 중 11.74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지식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은 전체 66점 만점 중 평균 33.2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4. Sexual experiences, Sexual attitudes, sex, sexual assertiveness sex

Definition	N	Mean	Standard deviation	Range
Sexual experiences	398	3.55	2.68	0-8
Sexual attitudes	398	11.86	3.37	3-20
Sexual knowledge	392	11.74	4.68	1-24
Sexual assertiveness	398	33.22	4.70	13-66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는 <Table 5, 6>과 같다. 성경험 점수는 25세 이상 여대생 집단이 여타 여대생 집단(19세 이하, 20-24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5.49, p<.001$), 종교가 있는 여대생이 없는 여대생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2.49, p<.05$). 또한 한 달 용돈이 50만원 이상인 여대생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경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7.98, p<.001$). 그러나 전공과 동거인 여부, 형제/자매 존재 여부는 성경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25세 이상 여대생이 여타 여대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4.93, p<.001$), 전공이 인문계열 또는 이공계 여대생이 예체능계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8.72, p<.001$). 또한 성경험과 마찬가지로 한 달 용돈이 50만원 이상인 여대생 집단이 이보다 낮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8.13, p<.001$).

성태도는 연령이 20세 이상인 여대생이 19세 이하 여대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7.53, p<.001$), 전공이 인문계열 여대생이 여타 공학계열, 예체능계 여대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8.03, p<.001$). 종교가 없는 여대생이 있는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4.09, p<.001$), 한 달 용돈이 50만원 이상인 여대생 집단이 이보다 낮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36, p<.001$).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인문계열 여대생, 종교가 없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성태도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가운데 성태도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xual experience of the respondents, Sexual type test for difference

characteristics	Person	Sexual experiences (N=398)			T/F	Sexual knowledge (N=392)		
		Mean	S.D.	Mean		S.D.		
Age								
≥19	106	2.29	2.12 ^c		9.34	4.177 ^c		
20-24	231	3.71	2.65 ^b	25.49***	12.24	4.506 ^b	24.93***	
25≤	61	5.13	2.71 ^a		14.02	4.481 ^a		
Major field								
Art and humanity	191	3.76	2.71		12.38	4.666 ^a		
Science and engineering	161	3.44	2.68	1.12	11.67	4.621 ^a	8.72***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44	3.21	2.49		9.14	4.149 ^b		
House mate								
None	162	3.56	2.66		161	11.84		
Presence	233	3.54	2.69	0.08	229	11.64	0.42	
Brothers and sisters								
None	41	3.10	2.55		11.56	3.86		
Presence	354	3.61	2.70	-1.16	11.77	4.79	-0.27	
Sibling								
None	189	3.20	2.54		11.81	4.87		
Presence	209	3.87	2.77	-2.49*	11.69	4.51	0.25	
A monthly allowance								
≥30 million won	95	2.84	2.68 ^b		11.03	4.71 ^b		
30-50 million won	195	3.47	2.49 ^b	7.98***	11.22	4.63 ^b	8.13***	
50 million won <	106	4.31	2.83 ^a		13.27	4.43 ^a		

foot note: * p<.05, ** p<.01, ***p<.001

Table 6. Assert onesel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xual attitudes of the respondents, sexual test for differences

characteristics	Person	Sexual attitudes (n=396)			T/F	Sexual assertiveness (n=395)		
		average	S.D.	average		S.D.		
Age								
≥19	106	10.81	3.21 ^b		33.75	4.58		
20-24	231	12.18	3.13 ^a	7.53***	33.18	4.69	1.50	
25≤	61	12.51	4.09 ^a		32.44	4.93		
Major field								
Art and humanity	191	12.56	3.62 ^a		33.35	4.10		
Science and engineering	161	11.29	2.94 ^b	8.03***	33.25	5.44	0.36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44	11.05	3.20 ^b		32.68	4.36		
House mate								
None	162	162	12.00		33.57	12.00		
Presence	233	233	11.78	0.67	33.07	11.78	1.08	
Brothers and sisters								
None	41	11.12	2.79		33.20	3.84		
Presence	354	11.84	3.41	0.52	33.23	4.80	-0.04	
Sibling								
None	189	12.58	3.12		33.42	4.03		
Presence	209	11.22	3.46	4.09**	33.03	4.40	0.83	
A monthly allowance								
≥30 million won	95	12.03	3.32 ^b		33.68	3.37		
30-50 million won	195	11.31	3.17 ^{ab}	5.36*	33.15	4.66	0.77	
50 million won <	106	12.58	3.50 ^a		32.87	5.74		

foot note: * p<.05, ** p<.01, ***p<.001

Table 7.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the sexual assertiveness

Definition	A model			B model		
	B	S.E.	β	B	S.E.	β
Age	-0.226	0.086**	-0.158	-0.229	0.085**	-0.161
Major field(Science and engineering)	-0.489	0.497	-0.056	-0.289	0.503	-0.033
Major field(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1.584	0.794*	-0.117	-1.498	0.791	-0.110
House mate(None)	-0.559	0.478	-0.064	-0.526	0.476	-0.060
Brothers and sisters(Person)	-0.243	0.435	-0.030	-0.185	0.433	-0.023
Sibling(None)	-0.040	0.236	-0.009	0.086	0.242	0.020
A monthly allowance(30-50 million won)	-0.545	0.585	-0.063	-0.366	0.589	-0.042
A monthly allowance(50 million won <)	-0.582	0.680	-0.060	-0.548	0.676	-0.056
Sexual knowledge	0.007	0.055	0.007	-0.028	0.057	-0.031
Sexual experiences	0.036	0.097	0.023	-0.012	0.099	-0.007
Sexual attitudes				0.171	0.081**	0.133
F		1.54			1.82*	
R ²		.04 (.02)			.05 (.03)	

foot note: * p<.05, ** p<.01, ***p<.001

Criterion group: House mate-Presence, Major field-Art and humanity, Sibling-Presence, A monthly allowance-≥30 million won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beta=-.158, p<.01$),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beta=.133, p<.01$) 성적 자기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태도는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적 자기주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여대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경험이 없는 여대생보다 약 2.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83.23, p<.001$). 성경험 여부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1%였고, 없는 경우는 84.9%으로 나타났다($\chi^2=194.18, p<.001$). 이러한 연구는 선행적으로 수행했던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내용으로 나타났는데, 이성교제가 본격화되는 대학생 2-3학년 때 성관계 경험률이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17], 전체 대학생의 41.6%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5, 18] (Kim et al., 2013).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사유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별 특성과 이성교제 경험, 연령, 전공 학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성친구 교체와 성경험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19]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연령, 이성교제, 대학 계열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0]

여대생들의 성폭력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여대생은 112명(28.1%), 경험이 없는 여대생

은 286명(71.9%)으로 나타났다($\chi^2=76.07, p<.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비해서 성 폭력을 경험한 여대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이 주요한 인자라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성적 광고와 정보, 성적 동영상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손쉬운 접근방식으로 인해 성과 관련된 광고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성 의식이 개방화되었고, 노출빈도나 자극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성과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6,919건으로 하루 평균 73.8건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15,094건, 2009년 16,156건, 2010년 19,939건, 2011년 22,034건, 2012년 21,346건과 비교할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1] 인터넷은 전 세계의 음란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유해한 정보로 인한 범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2]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으로, 이는 낙태, 미혼모, 빈곤, 불건강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무방비적인 성관계 (unprotected sex)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HIV/AIDS를 포함하여 임신 및 성병(STD) 등은 예상치 못한 건강위험을 안고 있어 개인, 자녀,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많은 사회, 경제, 건강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23]

성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성경험 점수는 6점 만점 중 평균 3.55점, 성태도는 20점 만점 중 평균 11.86점으로 나타났고, 성지식은 전체 26점 중 11.74점, 성적 자기주장은 전체 66점 만점 중 평균 33.22점으로 나타났다.

성경험 점수는 25세 이상, 종교가 있는 경우, 한 달 용돈은 50만원 이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분야와 동거인 및 형제/자매 존재 여부는 성경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25세 이상, 전공분야는 인문계열 또는 이공계 여대생, 한 달 용돈이 50만원 이상인 여대생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태도는 20세 이상, 전공분야가 인문계열, 종교가 없는 경우, 한 달 용돈은 50만원 이상인 여대생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태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공분야는 인문계열, 종교가 없을수록, 용돈은 많을수록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자기주장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과 성태도의 상관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 성 지식 특히 성 생리, 생식생리, 임신에 관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성태도도 개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1] 또한,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행동을 성관계 유무, 성폭력 행동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으며,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태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7]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적 자기주장도 강한 것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은 위험한 성행동의 횟수와 관련이 있으며, 성적 자기주장이 강할수록 안전하지 않은 성교율도 낮다고 하였다. [24] 성적 자기주장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여성이 원하는 성행동의 시도(initiation),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거부(refusal), 임신 및 질병 예방(pregnancy-STD prevention)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성경험, 예측되는 상대방의 부정적 태도(anticipation of a negative partner

response), 과거 성적학대 경험(sexual victimization), AIDS 및 성병예방에 대한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이성교제의 만족도 및 기간 등이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라고 평가하였다. [25]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그룹에 속하는 14~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낮은 성적, 성경험 부족, 일관성 없는 피임약사용, 소수민족 등이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여대생을 대상으로 상대방에 대한 낮은 자기주장 능력, 과거성적학대 경험, 알코올문제, 원만하지 않은 이성관계(relationship insecurity), 성 상대자의 수, 대학생 활 적응 여부 등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적피해(sexual victimization)군을 예측하는 인자임을 연구하였다. [26]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10대 여성 가운데 성접촉, 성교, 임신, 유산 등을 경험한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십대 여성들보다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들 중에 성 접촉을 경험한 군의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성접촉을 경험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고 성 접촉의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더욱 유의하게 낮아지고 있었다. [27]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은 단순한 성행동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신의 성적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원치않는 임신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과 관련지어 볼 때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건강아 출산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여대생에게 있어서 성적자기주장이란 이성교제 시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필요할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여대생들의 성경험 수준, 성 태도, 성 지식 등 성행태를 파악하고,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여대생들의 성적인 자기주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 결과이다.

분석대상자는 총 398명으로 연령별로는 20-24세 (58.0%)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평균 연령은 21.7

세다. 동거가족 유무별로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59.0%였으며, 전공분야별로는 인문계열이 48.2%, 형제 자매가 있는 비율이 89.6%,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 한 달 용돈은 30-50만원 미만에서 49.0%로 가장 높았다.

성경험, 성태도, 성지식,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기술분석에서 성경험은 최대 8점에서 평균 3.55점을 나타냈으며, 성태도는 평균 11.86점, 성지식은 평균 11.74점,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33.22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성경험, 성지식, 성태도 차이 검증 결과, 성경험은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성경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인문계열 또는 이공계열 일수록,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인문계열에서, 종교가 없을 경우,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낮은 연령 집단에서 아직 실제 성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자기주장 능력을 생각만으로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성태도가 개방적인 그룹에서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높게 나타나, 성개방 정도와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도할 수 있는 결론은, 성적 자기주장은 연령이 낮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높다. 그러나 성태도와 성경험은 인위적으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험과 성지식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앞서 성적자기주장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는 점과 성지식의 습득경로가 책이나 잡지인 비율이 높고 [28], 성지식 수준을 높이는 체계적인 성교육 교양강좌를 제안한 연구결과를 볼 때 [16], 성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성태도가 확립된 대학생 시기가 아닌, 실제 성경험이 시작되기 전인 저학년년부터 교육을 통하여 성지식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한다면, 일개 대학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남녀 대학생간 성태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성태도, 성경험, 성적자기주장에 대해 성별 차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Lee JY, Lee ES.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7(2), pp. 419-436, 2005.
- [2] East P. and Adams. J. "Sexual assertiveness and adolescents' sexual right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pp. 212-213, 2002. DOI: <http://dx.doi.org/10.2307/3097732>
- [3]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www.koica.go.kr/dev/download.jsp?strFileSavePath=/ICSFiles/afildfile/2013/05/31/5.pdf&strFileName=Health%20strategy.pdf>, 2011.
- [4] <http://www.nlm.nih.gov>
- [5] Choi, M.S., Ha, N.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0(4), pp. 318-330, 2014.
- [6] Kim JE.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s and the Unmet Needs for Sex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i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5(2), pp. 232-249, 1999.
- [7] Lee YH, et al. "Sex Knowledge and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1), pp. 26-35, 1997.
- [8] Koh MS, Suk JW.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spectives of Sexual Value of Female Students as related to Sexual".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7(3), pp. 153-160, 2011. DOI: <http://dx.doi.org/10.4094/jkchn.2011.17.3.153>
- [9] Yoo MS, Park JW, You MA.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mch.richis.org*, 16(1), pp. 14-22, 2012.
- [10] Shin KL, Park HJ, "Hong JM.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2(4), pp. 448-456, 2010.
- [11] Ha JY, Kim KH.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Womens Health*, 10(1), pp. 17-32, 2009.
- [12] Rickert et al.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pp. 178-183, 2002. DOI: <http://dx.doi.org/10.2307/3097727>
- [13] Kim JH, Kim K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3(1), pp. 123-138, 2008.
- [14] Kim BS.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7, pp. 111-124, 2000.

- [15] Churchill, G.A,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pp. 64-73, 1979.
DOI: <http://dx.doi.org/10.2307/3150876>
- [16] Yoo GS, Kang SH.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Sex and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pp. 101-118, 2010.
- [17] Ho, S.M.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09.
- [18] Kim, E.M., Yu, S.J., Song, MR. (2013).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 pp. 18-26, 2013.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1.18>
- [19] Kim, K.H., Kwon, H.J., Chung, H.K.,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6), pp. 954-963, 2004.
- [20] Lee, G.Y., Sim, I.Y.,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Korea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u. 34, pp. 159-182, 2013.
- [21] SPO(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4.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 [22] Kim ES, Kim GJ, Kim BH.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Contacts to Cyber Obscene Materials and Sex Crim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1(6), pp. 8-17, 2011.
- [23]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of Persons Aged 10 - 24 Years—United States, 2002-2007",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58(SS-6). www.cdc.gov/mmwr
- [24] Harlow, L. L., Quinam K., Morokoff, P. J., Rose, J. S., & Grimley, D. M.. "HIV risk in women: A multifaceted model".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 pp. 3-38, 1993.
DOI: <http://dx.doi.org/10.1111/j.1751-9861.1993.tb00025.x>
- [25] Morokoff, P.J., Kathryn Quina, Lisa L. Harlow, Laura Whitmire, Diane M. Grimley, Pamela R. Gibson, and Gary J. Burkholder.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pp. 790-804, 1997.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3.4.790>
- [26] Mac Greene & Navarro. "Situation-specific assertiveness in the epidemiology of sexual victimization among university women, A prospective path 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pp. 589-604, 1998.
DOI: <http://dx.doi.org/10.1111/j.1471-6402.1998.tb00179.x>
- [27] Jang SB, Lee MK.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4), pp. 318-330, 2003.
- [28] Han KS, Ham MY.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oward Sexual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pp. 115-131, 2000.

이 난 희(Nan-Hee Yee)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체육학 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1990년 3월 ~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관심분야>

영아사망, 출산행태,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 준 식(Joon-Sig Jung)

[정회원]



- 2009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안전공학과 (환경 및 산업보건학 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Post. Doc Researcher

<관심분야>

환경보건, 산업보건, 실내환경, 인체 노출평가

송 혜 숙(Hyea-Suk Song)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보건학 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3년 9월 ~ 2015년 2월 : 서영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보건행정과 조교수

<관심분야>

건강보험, 아동보육, 생활안전보건